

# 학회소식과 동정

## 학회소식

### • 한국공법학회(회장 송기춘 교수)

한국공법학회(회장 송기춘 교수)는 지난 2015. 5. 14.(목) 14:00~18:00 제주도 제주대학교 서귀포연수원에서 「한국, 프랑스와 일본의 사법부와 사법개혁」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

### • 한국헌법학회(회장 박종보 교수)

한국헌법학회(회장 박종보 교수)는 오는 2015년 6월 23일(화) 14:00~17:30 헌법재판소 1층 대강당에서 유럽인권재판소 및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초청하여 헌법재판소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

### • 한국행정법학회(회장 이광운 교수)

한국행정법학회(회장 이광운 교수)는 지난 3월 27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법학」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된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법학 : 이원우 교수(서울대)
- 골목상권 관련 법률의 규제영향과 개선과제 : 배병호 교수(성균관대)
- 획일규제에서 형평규제로의 변화 모색 : 박군성 교수(경희대)
- 재정준칙에 대한 검토 : 성승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 : 최환용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법학의 새로운 도전 : 허성욱 교수(서울대)
- 환경법상 규제 패러다임의 재편 : 전재경 원장(사회자본연구원)
- 경찰질서행정에서의 행정규칙 패러다임의 전환 : 박병욱 교수(경찰대)

- 공익산업에 대한 국가규제에 있어 행정법적 과제 : 조성규 교수(전북대)
- 비영리단체의 거버넌스와 정부규제의 한계 : 송시강 교수(홍익대)
- 행정법적 관점에서 공정거래법상 동의를결제도 : 박해식 변호사(울촌)
- 도시계획에서의 사인의 참여 : 길준규 교수(아주대)
- 규제개혁과 조례입법평가 : 윤계형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 명예교수)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 명예교수)는 오는 2015년 6월 13일(토) 14:00~18:00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도시개발에서의 국가와 민간의 새로운 거버넌스』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될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민간개발의 법적 문제 : 허강무 교수(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 공용수용에서의 사인수용의 법적 문제 : 장은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도시재개발사업에서의 공영개발의 법적 문제 : 이현석 교수(서원대학교 법학과)

### • 한국상사법학회(회장 신현운 부총장)

한국상사법학회(회장 신현운 부총장)는 지난 5월 1일(금) 13:30~18:00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7호에서 『최근 기업금융법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된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주식의 전자등록과 대체제도 도입에 따른 주주 보호방안 : 김지환 교수(경남대)
- 현행 기업법제상 수쿠크(sukuk)의 활용방안 : 이미현 교수(연세대)
-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현황과 문제 : 임정하 교수(서울시립대)
- ETN시장의 도입 및 법적 과제 : 엄세용 부장(한국거래소)

### • 오경식 교수(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형사법학)

한국피해자학회는 신임 회장으로 오경식 국립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를 선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오 회장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피해자학의 학문적 이론 발전과 피해자지원을 위한 국가의 실무적 과제를 연결하는 학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피해자학회는 범죄피해자학 발전과 피해자지원을 목표로 1992년 설립돼 현재 정회원 4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학 관련 대표적 학회로 성장했다.

---

### • 김용길 교수(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민사법학)

원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 교수가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교수는 국회 법제실의 사법법제 행정법제, 산업경제해양법제, 복지여성법제, 국토교통법제 등 10개 법제과의 입법활동을 위한 입법지원위원으로 오는 2017년 2월까지 활동한다. 국회 법제실은 국회위원의 법률안 입안의뢰에 따른 법률안 성안 및 검토를 하고 있으며, 제19대 국회에서는 2015년 2월 말 현재 2만1279건을 발의해 2016년까지 약 3만건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지원위원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성안 요구 및 행정입법의 검토의뢰 등 법제 관련 사항에 관한 입법자문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헌법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법률안과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률안, 제정 법률안에 대한 자문 등 법률안 입안에 대한 자문을 시행하고 있다.